

남성 초심상담자의 상담수련경험*

이 상 학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 영 석†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과 대학원, 상담실습 현장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연구 목적에 맞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였고, 최종적으로 남성 초심상담자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녹취된 자료는 문서 파일의 형태로 모두 전사되었으며 Giorgi의 기술적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4단계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40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고, 이 의미단위들을 통합하여 22개의 하위구성요소와 5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5개의 구성요소는 ‘진로 탐색 후 자신의 성격 및 가치관에 부합하는 상담 분야에 흥미를 느낌’, ‘상담 대학원의 물리적·심리적 환경에 적응해 감’, ‘남성상담자로서의 이점과 주변의 선입견, 성역할 갈등을 경험함’, ‘초심상담자로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제자리임을 확인하면서 성장해감’, ‘상담 분야의 여초 현상과 남성상담자의 기여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짐’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구성요소와 구성요소들을 통합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남성 초심상담자의 상담수련경험의 상황적 구조 및 일반적 구조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가 갖는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남성 초심상담자, 상담수련경험, 현상학적 연구

* 본 연구는 이상학(2015)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성 초심상담자의 상담수련경험에 관한 연구’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6171, E-mail : seox0004@yonsei.ac.kr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담 관련 직종과 대학원 상담 관련 전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고용노동부(2012) 통계에 따르면,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의 성비는 여성 81.3%, 남성 18.7%로 나타났다. 미국 역시 지난 40여 년 동안 상담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졌는데, 2011년에는 상담자의 약 70%가 여성이었고(Michel, Hall, Hays, & Runyan, 2013), 상담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여성이 남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weiger, Henderson, McCaskill, Clawson, & Collins, 2011).

상담 분야에서의 여성화는 상담자 문화뿐 아니라 상담전문직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Michel 등(2013)은 상담대학원 및 상담 직종에서의 여성지배적 분위기로 인해, 남성 수련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주변화(marginalization)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남성 수련생들은 여성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대인관계 스타일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남성의 특권’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마치 자신의 의견이 남성 전체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져 상당한 부담과 고립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분야에 존재하는 성 격차(gender gap)는 상담전문직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은 직종(예, 간호사)은 임금이 적고 사회적 지위가 낮으며 덜 전문적이라는 인식이 일반인들 사이에 형성되었기 때문에(Levanon, England, & Allison, 2009), 그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임금, 사회적 지위, 전문성 또한 낮을 것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Heppner & Heppner, 2009). 상담전문직 또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면서 ‘여성지배적인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러한 성 고정관념을 깨고 상담전문직에 입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Michel et al., 2013). 이렇듯, 해외에서는 상담 분야의 성 격차와 상담전문직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남성 상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논의와 실증적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상담자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수련 과정을 거치며 상담전문가로서 미래를 전망할 때, 성 격차와 성 고정관념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남성 수련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초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경험

많은 연구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직업(이하 ‘여초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경험을 조사하였다(강세영, 1998; 구본열, 2009; 김대욱, 2013; 김재은, 박인실, 2014; 박영례, 2009; 백승훈, 노진형, 2013; 안지령, 2013; 주봉관, 김낙홍, 2011; 최연철, 2003; Cross & Bagilhole, 2002; Lupton, 2006; Simpson, 2004, 2005). 우선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한 가지 직업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예, 청소년부, 간호사, 직업상담사, 노인 간병인, 초등학교 교사, 사회복지사)을 참여자로 모집하여 이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여초 직업에 종사하는 것의 이익(취직과 승진 시 상대적 용이함)과 불이익(낮은 보상과 명예)에 대해 언급했을 뿐 아니라(Cross & Bagilhole, 2002; Lupton, 2006; Simpson, 2004, 2005), 여초 직업에 종사하면서

남성성에 도전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Cross & Bagilhole, 2002; Lupton, 2006). 이러한 도전에 대해 참여자들은 전통적인 남성성을 지키려 하거나 남성성을 다시 정립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성적인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서’에서 ‘정보과학자’로 직업명을 변경해서 사용하거나, 항공기 승무원의 여성적인 ‘서비스’ 기능보다는 남성적인 ‘안전과 보안’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직업을 남성적인 직업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였다(Simpson, 2004). 또한 여성의 특징으로 간주되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더욱 완전한 사람(complete man)이 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자들은 간호사, 유아 교사, 초등학교 교사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으로 대상을 한정해서 직종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박영례(2009)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는데, 참여자 대부분은 인지/정서/행동/대인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학생들과 성차가 존재함을 인식하였고, 이로 인해 학과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점 더 성차를 인정하고 적응을 위한 대처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결국성을 초월하여 여성성과 남성성을 통합한 적극적인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남성 유아교사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열악한 경제력,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직업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백승훈, 노진형, 2013). 구체적으로, 이들은 유아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학과 여학생들과의 관계, 유아교육기관의 열악한 환경, 본이 되는

남성 교사의 부재, 여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교사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가 남성 유아교사로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남자교사들은 교직을 택하게 된 이유 및 목적(예, 적성, 자아실현, 경제적인 목적)과 학교 현장에서 남자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 및 이미지(마당쇠, 근엄한 아버지, 중성적 인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해서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본열, 2009). 즉, 일선 학교에서는 남자교사들이 ‘교사로서’가 아니라 ‘남자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데, 육체적인 노동을 떠맡아야 하는 ‘마당쇠’,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통제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근엄한 아버지’, 남성성을 절제하고 숨겨야 하는 ‘중성적 인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하면, 여초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취업과 승진 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임금과 사회적 지위, 여성 종사자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이질감과 소외감 등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지배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남성성’이 도전받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 때 남성들이 경험하는 갈등은 남성 심리학의 주요 연구 주제인 성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남성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성역할이 이와는 양립할 수 없는 상황적 요구와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데(O’Neil, Good, & Holmes, 1995), 남성들의 심리적 건강과 행복, 진로 관련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주목받아왔다

(Heppner & Heppner, 2009). Wester(2007)는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4개 차원으로 구체화했는데, 개인적 성취 및 타인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험하는 갈등(‘성공, 힘, 경쟁’), 감정을 경험해도 이를 타인에게 표현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감정 억제’, 아버지나 아들 등 가까운 남성에게 애정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 가족보다 직업/일을 우선시하면서 두 영역에서 불균형을 경험하는 ‘일과 가족 관계 간의 갈등’으로 개념화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여초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내면화된 남성 성역할이 여성지배적 환경과 충돌하여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기존의 남성성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성정체성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상담전문직에서의 남성

남성 비율이 25%~30% 미만인 직업을 여초 직업으로 분류한다면(Chusmir, 1990), 상담 전문직 역시 여초 직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상담자 역시 앞서 살펴본 여초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과 비슷한 경험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내담자에게 심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다른 직종과 차별화되는 수련과정(예, 교육 분석, 슈퍼비전)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남성상담자들에게 특화된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담수련과정에서 강조하는 상담자의 ‘따뜻함, 공감적 태도, 감정에 초점을 둔 탐색’과 같은 행동들이 남성수련생들에게 성역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Wester & Vogel, 2002). 또한 남성 내담자에게 느끼는 걱정, 공감, 따뜻함, 남성 슈퍼바이저에게 느끼

는 고마움과 애정의 감정이 남성 성역할과 동성애에 대한 위협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이는 남성내담자 및 남성 슈퍼바이저와 작업동맹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저해할 뿐 아니라 상담효능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Wester & Vogel, 2002).

국내에 남성상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과 관련 변인 간 관계를 살핀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 유영달(2006)은 상담 및 심리치료를 ‘여성적 돌봄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서 남성상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잠재적인 문제들에 관해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상담 및 심리치료가 업무 특성 상 남성보다는 여성의 적성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남성상담자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성상담자는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여성상담자에 비해 상담료 등 윤리적인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고, 과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소진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극복 및 대처방안으로 치료적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헌신, 윤리적 사안에 대한 민감성 증진, 남성의 강점에 기초한 상담 및 심리치료 양식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자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토대로 남성상담자들이 경험하는 문제 및 위기를 직업적/윤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남성상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 특히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어떤 형태로 경험하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어려움에 대처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정민선(2011)은 남성상담자의 감정억제와 공감능력, 내담

자가 지각한 작업동맹과 상담만족도 간의 구조적인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성상담자의 감정억제가 적을수록 공감능력은 높고, 그로 인해 내담자는 상담자와 작업동맹이 잘 형성되었다고 지각하고, 결국 내담자의 상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남성 상담자의 성역할갈등(감정억제)에 주목하여 이 변인이 상담과정 및 성과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유영달(200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남성상담자들의 실제 경험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남성상담자의 강점과 과제

남성상담자들은 상담분야에서 많은 강점을 지닌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과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성상담자는 내담자 및 호소문제에 따라 선호되는 상담자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내담자들은 주로 개인적이거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상담자를 선호하는 반면, 학업과 직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상담자를 선호한다(홍경란, 1993; Bernstein, Hoffmann, & Wade, 1987). 더욱이 내담자는 자신과 동일한 성별의 상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Boulware & Holmes, 1970; Fuller, 1964), 우리나라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격 및 행동장애로 진단받는 비율이 2배 이상 많고 최근 들어 인격 및 행동장애로 진단받은 20대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남성상담자에 대한 내담자 개인 및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남성상담자들은 특정 기법

또는 전략을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남성내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남성내담자들은 자신과 상담자 사이에 정서적 거리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접근(예, 정신분석적 치료)을 선호하고 상담 효과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Ogrodniczuk, Piper, Joyce, & McCallum, 2001). 대체로 남성상담자는 여성상담자에 비해 정서적 공감이 덜하지만 인지적 과제에 초점을 두고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정민선, 2011),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문제해결을 원하는 남성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상담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일은 다문화상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현재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다문화적 가치와 역량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Sue & Sue, 2013), 특히 성(gender: 이하 젠더)은 개인의 삶과 사회문화적 경험을 조직하는 핵심요인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Evans, Duffey, & Englar-Carlson, 2013). 젠더는 여성 또는 남성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되는 심리 사회문화적 특성을 의미하는데(Gilbert & Scher, 1999), 사람들이 젠더를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또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Addis & Mahalik, 2003). 이렇게 젠더를 학습하는 과정은 성역할 규범, 즉 어떤 것이 남성의 행동으로서 또는 여성의 행동으로서 적절한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형성된다(Mahalik et al., 2003). 특히, 남성 성역할 규범은 한 사회에서 남성인 것과 관련된다 고 인식되는 규범을 의미하는데, 일, 위험 감수, 스스로에게 의지, 정서 조절을 강조한다(Mahalik et al., 2003). 이렇게 남성 성역할은

자기개념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많은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과 정신 병리의 다양한 지표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Addis & Mahalik, 2003; O'Neil, 2008). 남성상담자들의 경험을 이해함에 있어서 젠더, 특히 남성 성역할규범이 중요한 이유는, 남성 성역할규범과 치료적 규범 간에 모순(contradiction)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 Good, Thomson, & Brathwaite, 2005; Wester, 2007). 예를 들어,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기꺼이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Gilbert & Scher, 1999). 따라서 이러한 규범은 남성성역할 규범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 예를 들어 스스로에게만 의지하려고 정서표현을 억제하며 지배적인(dominant) 대인관계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Good et al., 2005; Mahalik & Rochlen, 2006).

앞서 논한 것처럼, 우리나라 남성상담자들이 여초 직종인 상담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 확인한 실증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남성 성역할규범을 고수하도록 사회화된 남성상담자들이(예, Levant et al., 2007) 치료적 규범을 강조하는 상담수련 문화에서 어떤 도전과 갈등(또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대처해 가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남성상담자들이 상담수련 과정에서 경험하는 도전과 긍정적인 경험들을 실증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남성상담자들이 상담문화에 정착하고 이들에게 최적화된 상담교육 및 훈련,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이들이 교육 및 훈련

과정을 포함한 상담 현장에서 남성상담자로서 어떤(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하는지, 이런 경험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남성 초심상담자의 경험 및 의미 탐색

한편, 본 연구에서는 남성 초심상담자들의 상담수련경험을 탐색하였다.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숙련 상담자들은 지식이나 경력 측면에서 이미 기반을 확립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심상담자들의 경우 상담 분야에서 한창 적응 중에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채 쌓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상담전문직의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은 상담수련과정에 있는 모든 상담자를 힘들게 하지만, 생계부양자로서 안정된 직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상담자, 특히 남성 초심상담자들에게는 더욱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안선영, 2010).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수련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 자원과 대처 방식, 남성상담자로서 지니는 혜택과 비용 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재 상담수련 과정 중에 있는 남성상담자들의 진로 적응 및 자기계발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남성들이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들을 탐색한 결과 ‘남성’ 초심상담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고, 초심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예, 권혜경, 이희경, 2013; 김지연, 한나리, 이

동귀, 2009; 신재호, 정남운, 2007). 이들 연구에 남성 초심상담자들의 경험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초심상담자들의 특성 및 수련경험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초심상담자들은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상담 대학원에 입학하지만 전공 및 이후 진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담공부를 시작한다(황채운, 박지아, 유성경, 강지연, 2009). 수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초심상담자들은 수행불안과 이로 인한 내담자에 대한 알아차림 부족(최은실, 2002)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상담자로서의 부족함(황채운 등, 2009)을 느끼게 된다. 즉, 초심상담자로서 경험하는 혼란과 불안은 동시에 초심상담자들의 자기성찰 과정을 촉진하게 되는데(황채운 등, 2009), 지속적인 자기성찰은 상담 동료 및 슈퍼바이저의 도움, 상담 사례 및 워크숍을 통한 학습,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초심상담자들이 수련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김지연 등, 2009; 황채운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상담수련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포괄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과 상담전공 대학원, 상담실습 현장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10명의 남성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해서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Giorgi(1985)의 기술적인 현상학적 연구방법(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은 연구자의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의 목적 또한 남성 초심상담자의 경험의 본질(essence)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에 나타나는 그대로 현상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는 Giorgi(1985)의 연구방법이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남성 초심상담자는 상담을 진로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남성 초심상담자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남성 초심상담자는 상담실습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상담수련경험은 남성 초심상담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 시점까지 상담경력 4년 이내인 남성상담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마다 초심상담자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상담 자격증이 있으며 경력이 3년 정도 된 상담자를 초심상담자로 정의한 경우도 있고(오정희 2007; 정경빈, 2009), 상담 자격증이 없는 상담전공 석사과정생으로 정의한 경우도 있다(황채운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상담실습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상담 경력 4년 이내의 남성상담자를 모집하였다. 상담경력의 상한선을 4년으로 한정된 이유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의 1급 자격증 수련요건에서 상담수련 경력을 최소 3년 이상 또는 4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담경력이 4년 이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적 정보 및 상담 경력

참 여 자	연령	성별	학력	상담경력	상담 사례 수*	수퍼 비전 참여	교육 분석 참여	집단 상담 참여	사례 발표 참여	자격증
1	34	남	석사재학	3년10개월	50	120	4	5	3	미국미술치료사
2	32	남	석사재학	10개월	14	11	10	5	8	無
3	31	남	석사졸업	2년 6개월	40	1	0	40	25	無
4	33	남	석사졸업	3년 8개월	190	15	8	7	22	상담심리사 2급
5	34	남	석사수료	3년 4개월	150	40	0	60	40	상담심리사 2급
6	33	남	석사재학	2년 3개월	80	0	3	3	2	無
7	28	남	석사재학	1년	3	0	15	2	8	無
8	32	남	석사재학	1년 1개월	8	10	1	6	20	임상심리사 2급
9	42	남	박사재학	6개월	7	9	20	4	15	無
10	31	남	석사졸업	3년 2개월	30	64	12	7	8	상담심리사 2급

주. *상담 사례 수는 상담을 실제로 진행한 내담자의 숫자를 의미함.

상일 경우 상담전문가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경력의 상담자를 초심상담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상담 관련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갖춘 남성상담자를 모집하였다. 상담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으로 선정 기준을 정한 것은, 상담자의 전문성 교육이 대학원 석사과정부터 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Skovholt와 Ronnestad(1992)의 주장과 이 주장을 따르고 있는 초심상담자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많은 상담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겪었던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많고 생생한 체험을 들려줄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구 참여자로 선발하지 않았으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연구결과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상의 기

준을 적용해서 모집한 남성 초심상담자는 총 10명이었고, 연령은 28-42세(평균 33세), 상담 경력은 6개월에서 3년 10개월(평균 2년 2개월)까지 분포하였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상담을 진행한 사례 수, 수퍼비전을 받은 횟수, 교육 분석을 받은 횟수, 집단상담에 참여한 횟수, 공개사례발표에 참여(발표, 참관)한 횟수, 자격증 유무에 대한 정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의도적으로 모집하는 의도적(목적적) 표집(박혜준, 이승연, 2009)과 지인을 통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찾는 눈덩이 표집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와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남성 상담수련생 1명을 시

작으로, 2급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한국상담심리학회 동계수련회에 참여한 남성 상담수련생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서 연구 설명서를 배포하였고, 3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소개로 5명의 참여자들을 추가 모집하였으며, 1명의 참여자는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해 일대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면담을 위해 반구조화된 형식의 질문지를 제작하였다(부록 참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여초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강세영, 1998; 구분열, 2009; 김대욱, 2013; 김재은, 박인실, 2014; 박영례, 2009; 백승훈, 노진형, 2013; 안지령, 2013; 주봉관, 김낙홍, 2011; 최연철, 2003; Cross & Bagilhole, 2002; Lupton, 2006; Simpson, 2004, 2005), 초심상담자(권혜경, 이희경, 2013; 김지연 등, 2009; 오정희, 2007; 이영순, 2010; 황채운 등, 2009; Hill, Sullivan, Knox, & Schlosser, 2007), 남성상담자(유영달, 2006; 정민선, 2011; Michel et al., 2013; Wester & Vogel, 2002)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 문항의 적절성과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전공 교수 1인과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물을 출판한 상담전공 박사 1인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하였다. 그리고 상담전공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남성상담자 2인에게 예비 면담을 실시한 후,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질문의 내용 및 형식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피드백을 받기 이전의 도입 질문은 ‘상담수련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말씀해주세요’이었는데, 연구자는 이 질문을 통해 참여자가 남성으로서 느꼈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예비 면담 결과, 질문

의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피면담자가 어떤 것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호할 뿐 아니라 연구자가 초점화하고자 했던 ‘여초 직종에서 남성으로서 느끼는 경험’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남성으로서’라는 문구를 모든 질문에 추가함으로써 질문의 초점을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도입 질문(예, ‘남성상담자로서 상담수련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 말씀해주세요.’)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5개 영역에 대해 19개의 질문을 확정하였다. 5개 영역은 상담수련과정에 입문하기 이전에 한 경험(예, 상담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동기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상담전공 대학원 및 실습현장에서의 경험(예, 여성이 많은 대학원 또는 실습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상담수련의 의미(예, 상담수련과정에 있는 남성상담자로서 당신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남성상담자의 기여 및 역할에 대한 기대(예, 상담전문직에 남성이 더 들어오면 어떤 점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상담수련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예, 상담수련과정에서 어떤 점이 바뀌면 남성 상담수련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이었다.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자가 연구 참여를 희망한 지원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구 대상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지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이때 지원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스터디룸, 카페, 자택 등)로 약속 일정을 정했다. 면접 당일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참여자로부터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다음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진행되었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첫 면담 이후 추가 질문이 필요하거나 연구 대상자의 말을 잘 이

해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30분 정도 전화로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였고, 녹음한 면담 내용은 연구자가 전사하여 문서파일로 저장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에 앞서, 연구자는 판단중지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 당시 상담전공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상담경력이 1년 정도 된 남성 초심상담자였다. 즉,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비슷한 상황과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을 보다 쉽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구자의 선경험과 선가정으로 인해 연구 대상의 경험이 왜곡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반성일지를 작성하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무엇인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지금 연구에 임하고 있는가?’, ‘내가 연구 대상자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나의 선입견은 연구 진행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연구자 자신의 선가정과 선입견을 반성하는 과정을 거쳤다(Barritt, Beekman, Bleeker, & Mulderij, 1995).

심층 면담이 종료된 후 녹취 자료를 문서파일로 전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자료 분석이 진행되었는데, 이남인(2014)이 기술한 Giorgi의 기술적인 현상학적 연구방법 4단계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자료를 세 번 읽으면서 자료가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자료에 대한 감각을 얻음으로써 다음 단계인 의미 단위를 구별하는 기초 작업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때 반성일지를 수시로 검토하면서 연구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입견들을 자료 옆에 메모해놓는 괄호치기를 수행하였다. 그런 다음,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의미단위로 구분하였다. 유사한 의미 단위를 삭제해가면서 의미 단위를 확정하고 번호를 붙였으며, 확정된 의미 단위들 간의 관계 및 전체 연구 주제와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총 1214개의 의미 단위가 도출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 연구자는 의미 단위 중에서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내용을 제외한 후 의미 단위를 학술적인 용어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언어를 연구자가 나름의 숙고를 통해 추상적인 용어로 새롭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환원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각 의미 단위를 반성하는 과정(reflection)과 상상적 변주(imaginative variation)하는 과정이 필요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640개의 의미 단위가 확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학술적인 용어로 기술된 의미 단위들을 원자료에 근거해서 참여자들을 비교하는 순환적 분석과정을 거쳐 상위개념인 22개의 하위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각 하위구성요소 간의 연관성을 찾고 재배열하는 자유변경법을 통해 총 5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5개의 구성요소와 22개의 하위구성요소를 재편성하여 참여자들의 상담수련경험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맥락으로 재배열함으로써,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상담 교육 및 수련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써내려가듯 하나의 본질구조로 재구성하였다(표 2 참조).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본 연구에서는 신경림(2004)이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의 엄밀성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적용하여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우선, 연구에 참여한 3명의 남성상담자에게 면담 기록 내용과 분석 결과를 읽게 한 후,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분석 결과가 남성 초심상담자의 상담수련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남성 초심상담자에게 연구 결과를 읽어 보게 한 후, 그가 겪은 상담수련경험을 얼마나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물을 출판하였거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심리학 또는 교육학 박사 2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남성 초심상담자와 상담수련과정에 관한 선이해, 편견 등을 개인 일지에 기술하고 괄호치기함으로써 참여자가 진술하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결 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들(예, 김세일, 2013; 고윤희, 박성현, 2014; 이미정, 2014)에서는 보통 연구 결과를 크게 2개의 구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각 참여자가 겪은 생생한 경험의 중심의미를 통합해

서 사례별 비교를 통해 서술하는 상황적 구조를 제시한다. 그런 다음,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한 경험의 본질적 의미구조인 일반적 구조를 제시한다(Giorgi, 2009; 이미정[2014]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상황적 구조를 통해 참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일반적 구조를 통해 경험의 본질을 이끌어냄으로써 연구결과의 의미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남성 초심상담자의 상담 관련 교육 및 수련 경험에 대한 상황적 구조

자료 분석을 통해 확정된 5개 구성요소 및 22개 하위구성요소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래에서는 5개 구성요소별로 참여자들이 보고한 남성상담자로서의 경험을 발췌문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진로 탐색 후 자신의 성격 및 가치관에 부합하는 상담 분야에 흥미를 느낌

이 구성요소는 참여자들이 본격적인 상담 교육 및 수련과정에 입문하기 전에 진로를 탐색하면서 상담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 다른 분야에서 공부를 하거나 직업을 구해 일한 경험이 있지만 한계를 느끼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진로탐색기를 가졌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뭔가 탐구하고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글을 쓰고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을 갖는 걸 좋아해서 @@대 철학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표 2. 남성 초심상담자의 상담 관련 교육 및 수련 경험의 구성요소 및 하위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1. 진로탐색 후 자신의 성격 및 가치관에 부합하는 상담 분야에 흥미를 느낌	1) 상담과 다른 분야의 전공이나 직업에 종사함 2) 상담전문직이 지닌 내적 가치에 매료됨 3) 진로에 대해 가까운 지인들이 지지해줌
2. 상담 대학원의 물리적·심리적 환경에 적응해 감	1) 대학원 구성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음 2) 남녀 간 관점의 차이와 의사소통방식의 차이를 느낌 3) 여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낌 4) 남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유대감을 느낌
3. 남성상담자로서의 이점과 주변의 선입견, 성역할 갈등을 경험함	1) 남성상담자의 희소성으로 인해 채용에서 이득을 봄 2) 남성이라는 것이 상담사례배정에 영향을 미침 3) 남성 성역할에 대한 주변의 기대와 선입견을 느낌 4) 자신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고찰함 5) 상담 분야의 미래 전망에 대해 성인 남성으로서 불안감을 느낌
4. 초심상담자로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제자리임을 확인하면서 성장해감	1) 상담수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부담감을 느낌 2) 상담 이론과 실제 상담이 연결되지 않는 괴리감을 느낌 3) 부족한 점이 많은 초보자로서의 모습을 자각함 4) 슈퍼비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함 5) 상담의 업무나 환경적 특성에서 편안함을 느낌 6) 자기/타인 이해 증진을 통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함 7) 상담수련과정에서 겪는 역경에 대해 수용하고 도전함 8)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수련과정의 필요성을 느낌
5. 상담 분야의 여초 현상과 남성상담자의 기여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짐	1) 상담분야의 여초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낌 2) 남성상담자로서 상담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던 공부와 다른 것 같았고 심리학과를 갔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학교 때려 치고 집을 나와서 독립생활을 시작했어요. (중략) 학부를 빨리 끝내고 회사를 들어갔더니 회사는 조직 생활이니까 조직 생활이 또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참여자 4>

“처음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심리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심리학과를 들어갔구요. 그다음에 이제 막연하게 대학원 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진로에 대해 생각할 때 정말 막연하게 심리학하면 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3학년 말이랑 4학년 초쯤에 임상 전공이

랑 상담 교수님 중에 골라야 하니깐, 나는 임상이라 상담 중에 뭘 골라야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봉사활동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 보고 임상 관련한 기관에서 보조 치료도 해보고 했는데 임상 관련 경험이 다 재미가 없었어요. 상담 관련 경험으로는 싸이코 드라마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진로 관련해서 제가 주인공을 했었는데 그때 상담을 하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계기라면 가장 눈에 띄는 계기예요. 그때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쯤 되는 거 같아요. 아니면 3학년 2학기 쯤.” <참여자 10>

이러한 진로탐색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 분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상담의 외적 가치보다는 내적 가치에 매력을 느껴 상담을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즉, 참여자들은 진로 선택 시 경제적 보상, 승진 기회, 장래 전망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보다는, 흥미, 일을 통한 자기개발, 이타적인 측면들을 중시하였다.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거 같아요. (중략)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심리학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심리학, 상담, 임상 이런 게 뭐하는 직업이고 나중에 뭐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되게 매력적이기도 하고 안 좋은 점이라고 말해주는 것도 나중에 좀 불확실하고 그런 점도 저한테는 끌리더라고. 외려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불확실한 게 좋기 보다는 그렇게 정형화 되어있지 않으니 내 능력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안 좋은 단점일 수 있다고 말해주는데 저는 그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상담을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다른 일을 했으면 더 받았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가 좀 적은 거 같은데. (중략) 하고 싶어서 한다. 다른 이유가 없다. 하고 싶어서 한다 인거 같아요. 돈 돼서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지.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선택이니까. 그게 더 크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저한테는.” <참여자 10>

이렇듯 참여자들이 상담에 흥미를 느끼고 상담을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큰 반대 없이 대체로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에 대해 잘 모르거나 다소 관계가 먼 지인들 중에는 상담 분야의 미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또한 있었다.

“우선은 갑자기 하던 거를 바꿨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것도 있었는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 하던 거 그냥 하지, 왜 그걸 바꾸냐고 했고. 특이하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좀 어렸을 때 상처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상담을 공부하면서 너 스스로를 좀 바라,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여자 친구도 하고 싶은 걸 해라, 원하지 않는 걸 하기보다 좀 늦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식으로 지지를 해줬어요.” <참여자 8>

“(상담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다들 재 뭐하나. (웃음)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들, 좀 아는 애들 빼고는. 근데 몇 개월 지나다보니까 사람들이 아, 너가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해가 간다? 앞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직장에는 차마 상담공부를 한다고 직장을 그만둔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다른 조 그만 회사로 옮긴다고 하고 나왔는데 정말 친한 동기 1명한테만 말하고 말았는데 다들 그럴 줄 알았다는 분위기? (웃음) 선생님은 되게 지지해주셨고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다 지지해주는.” <참여자 9>

상담 대학원의 물리적·심리적 환경에 적응해 감

이 구성요소는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 대학원에 입학하여 남성이 희소한 물리적 환경과 그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우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상담전공 대학원에 입학해서 처음 경험한 것은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이 희소하다는 것이었다. 성비 불균형은 상담수련과 관련된 모든 장소와 상황(대학원, 실습현장, 집단상담, 수퍼비전 등)에서 인지했지만, 상담수련이 시작되는 대학원에서 처음 느끼기

때문에 인상에 깊이 남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원에서 본인만 남성인 경우부터 남성 비율이 1/3인 경우까지 성비의 범위는 다양했지만, 대학원 환경은 남성 비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여성지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초기에는 남성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구성원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느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악의적인 소문의 피해자가 되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경험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대학원에 갔더니 동기 중에 3명만 남자와 나머지는 다 여자인 거예요. 아, 이게 보편적인 비율이구나라는 걸 오히려 그때 깨달았고 (중략) 주목은 어딜 가든 돼요. 오, 남자 상담사라고 주목당하는 느낌이. 관심 받고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면서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회의를 갈 때도 좀 더 집중해주려는 모습이 있으니까 당연히 성비가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참여자 4>

“근데 확실히 교수님들도 젊은 남자 선생님들을 선호하시는 게 있긴 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도 교수님을 선정하는 기간에 일부 남자 선생님들은 교수님이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웃음) 원래 남자 선생님들이 교수님을 찾아뵈어야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미리 연락을 해서 연구 계획서를 가져와봐라.(웃음)” <참여자 2>

“남자로서 느꼈던 거는 구성원 중에 혼자 남자이다 보니까 대화하는 데 어려

움? 그들이 얘기를 할 때는 뭔가 항상 초점이 되는 대상? 알게 모르게 뭔가 우리는 생각이 이런데 남자로서 너는 어머니, 그리고 학교가 되게 페미니즘이 강한 곳 이어서 공격 아닌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면, 다문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가져온 아티클들이 가정 폭력에 관한 것들이 많아서 남자들이 많이 그러고 있다, 비율로 봤었을 때나.. 뭔가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저런 쓰레기인가? 라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지.” <참여자 1>

“일단 대학원에서는 확실히 여자가 더 많아요. 에피소드 같은 걸 말씀드리면 제가 1,2학기 대표였어요. (중략) 제가 대표로서 누군가를 챙겨주고 할 때 어떤 오해 아닌 오해. 대표가 누구를 좋아한다, 애를 좋아한다, 재를 좋아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중에 들렸더라고요, 저한테. 나중에 내 의도는 그게 아니고 힘들다고 그래서 좀 챙겨준 건데 그런 뒷말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기분이 나빴죠.” <참여자 6>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자신과 여학생들 간에 대화주제가 다르고 상담에서 내담자를 바라보는 관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특히, 자신이 보기에는 사소한 부분을 여학생들이 과하게 신경 쓰고 학업 이외의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괴리감을 경험하게 된다.

“거기서는 여자 분들이 서로 여자들이

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면 공감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감정을 따라가기가 조금.. 서로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살짝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따라가기가 힘든? 공감하기 힘든? 딸들이 엄마하고 겪는 그런 것, 저는 솔직히 엄마하고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지 살짝.. 저번 집단에서는 어떤 여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다가 다른 분들이 웃었거든요, 여자분들 몇 분이 다 따라서 웃으시는 거예요, 많이. 저는 솔직히 그렇게 공감이 안 갔던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웠어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참여자 7>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쟁이 문화고 해서 그때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죠. 모임은 초반에 자주 하다가 나중에는 단체 채팅방도 제가 나가버렸어요. 왜냐면 동기라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단체 채팅방에만 있으면 생일 축하한다든지 그런 게 너무 지나친.. 아, 누구 누구 씨 결혼 축하해요 정도가 아니고 어찌구저찌구 완전 장문의 글을 쓰고 너무 미사여구를 쓰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친했나?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듯이 장문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남자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표현이 안 되니까 좀 쓰기 힘든 경우도 있고 저는 그게 그냥 보기가 싫어가지고 거기를 나와 버렸어요. 그럴 때는 진짜 남자 여자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참여자 4>

여학생들과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참여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점 더 여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과 여학생들 사이에 벽이 있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더 심해지고, 남성상담자들은 그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점점 더 주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원이 많은 그룹에 있을 때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 거 같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상담 계통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공부도 하고 그럴 무렵에 대부분 여자 분들이고 여자 분들은 남자도 그런데 약간 둘 셋 씩 짝을 짓고 소그룹을 만드는 경향이 있죠. 소그룹을 만들면 각 그룹과 적당히 다 친하게 돼요. 아예 다 적당히 거리를 두게 되던가, 적당히 친하게 되던가.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립적이 되는데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밀착하게 되면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되는 걸 스스로 경계를 좀 했죠. 그래도 여성분들끼리 동성들끼리 뭉치는 것만큼 완전 밀착되지는 못하죠. 그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제약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사적인 시간을 갖기도 애매하고 더군다나 그게 둘이라면 나랑 1:1이라면 더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소규모 그룹인 직장에서 그 소규모 그룹 전체가 친한 경우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룹이 그룹 자체가 스터디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이어진다거나 그렇게 되죠. 고독감 비슷한 걸 느꼈어요.” (참여자 5)

“우선, 수업이 있고 식사시간 같은 경우에 보통 밥을 먹을 때, 주문을 할 때 저는 신입생이고 하니까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성분들끼리 나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하는데 나한테도 물어보겠지, 나는 뭐 먹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자, 이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여성분들이 확보되고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죠.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소외감 같은 것? 아, 내가 저 집단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3>

반면, 참여자들은 다른 남학생들을 보면서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다른 남학생들과 별도의 모임을 갖고, 그 속에서 위로를 느끼는 등 급속도로 친해지는 경험을 한다.

“남자들하고는 동기가 나이 드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후배들이 들어오면 제가 가서 친한 척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개별적으로 모이는 술자리도 일부러 만들었고 같이 얘기 나누고 술 마시고 놀고.. 일부러 그렇게 했죠. 그리고 스터디 하자고 하고 스터디도 하고.. 아무래도 남자들끼리 있을 때 좀 더 말이 쉽게 통하는 면이 있죠.” <참여자 4>

“남학생과의 대인관계에서는 그런 게 있지, 뭔가 위로감? 위로감도 있고 애도 이런 걸 느끼겠구나, 하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중략) 남자란 존재가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든든함은 있는 거 같아. 나와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다, 내가 어떤 말을 했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라는. 그리고 남학생이 한 명 더 있음으로써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만은 아니구나, 자기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참여자 1>

남성상담자로서의 이점과 주변의 선입견, 성역할 갈등을 경험함

이 구성요소는 참여자들이 남성상담자로서 경험하는 이점과 기회, 주변에서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 및 선입견, 그리고 상담 업무에서 요구하는 여성적 성역할과 자신의 남성성이 충돌하는 성역할갈등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참여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상담자가 적은 현 상황, 즉 남성상담자가 희소하다는 것이 상담사 채용 시 이점이 되고 미래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느낀다.

“상담만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나 사업구상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기업체나 학교나 공공기관은 아직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남성을 선호하는 편이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남자상담사를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게 장점인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실 기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 기회를 잘 살

리면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주 슈퍼바이저가 항상 하는 말씀이 상담 영역에 남자 선생님들은 매우 적고 더군다나 상담을 잘 하는 남자 상담사는 너무 찾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네가 좋은 상담사로서 상담을 잘하는 상담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기회가 되고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제 실력, 능력을 높일 수 있다면.” <참여자 2>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상담실습 현장에서 상담 사례를 배정받으면서 다소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 우선, 남성상담자가 실습 현장에 많지 않기 때문에 남성상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인 경우 자신에게 배정되는 경험을 한다. 예를 들어, 남학생이나 비행청소년, 또는 남성상담자를 원하는 내담자인 경우 자신에게 배정되는 경험을 한다.

“내담자가 남성상담자를 원하는 것이거나 센터에서 남자 청소년이 활발하니까 남성상담자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밤늦게 야간에 상담이 들어오면 여자가 혼자 7~8시에 상담하기 힘든 경우에 대신 저를 배정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남자상담자라서 이러한 환경에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구나, 여자상담자를 원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남성상담자를 원하는 케이스가 있구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참여자 2>

반면, 남성상담자라는 이유로 사례배정 시 제약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년상담센터에서는 성문제를 염려하는 부모들로 인해 참여자들이 여성내담자를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남자 상담사다 보니까 사례배정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성문제가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1:1로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좀 하셔서 상담 의뢰를 하실 때 여자 상담 선생님이로 배정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래 남자 내담자보다도 여자 내담자들이 더 많은데 남자만 제가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성비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참여자 3>

한편,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주변 상담자들이 자신에게 특정한 성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드는 등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거나 기계를 다루는 등의 작업을 할 때 자신이 전담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전일제로 일하고 나서부터는 분명히 뭔가 생기는 했죠, 사업이나 행사가 있거나 행사가 아니더라도 자질구레한 변수가 발생하면 자꾸 남자를 찾죠. 진짜 별거 아닌 하다못해 시설을 관리하는.. 마이크를 연결하거나 프로젝터를 내리고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행사가 있으면 카메라 담당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내가 카메라를 잡고 찍고 있고.. 아웃리치 같은 걸 나가면 다들 기본적으로 열심히들 하시지만

남자한테 더 바라는 게 많고. (중략) 아무래도 여자 분들이 많다보니까 소수인 남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많다고 봐요. 뭔가 이성적인 브레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저는 느껴져요. 뭔가 전면에 나서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는 거 같고.” <참여자 4>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 안의 남성성과 상담 업무에서 요구되는 여성적 성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충돌은 상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매우 다양하게 반응한다. 즉, 상담 현장에서 요구되는 여성성을 어색하게 느끼거나, 상담 업무를 통해 익숙해진 여성적인 행동패턴을 일상에서 재연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남성성을 이전과는 다르게 정의하려고 시도한다.

“상담자가 아닌 모임에서 농담으로 너 게이 아니냐고 해서 제가 결혼식에 초대할 테니 그때 보라고 했는데.. 그런 거죠. 일단 여성분들이 많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약간 행동거지를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고 한동안 대학원하고 기관하고 여성분들만 많이 만나다가 나중에는 개인적인 여유가 나서 모임 같은 것을 하면 성인 남성을 대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느낌? 그런 게 있죠. 지금도 그냥 일반모임에도 여자들하고 더 빨리 친해지는 거 같아요. 일단 행동이랄까, 이렇게 팔을 빼서 옷을 어깨에 걸치고 있고 손동작을 써가면서 얘기하고 리액션이 조금 그렇게 되잖아요. (웃음) 그리고 대화하는 것

도 약간 다를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잘 인식 못하지만 이대로 좋은가, 나의 남성성? 이런 거겠죠.” <참여자 5>

“그리고 남자로서 느낀 거는 상담 관계에서 공감 표현을 해주고 그런 표현에서 제가 다소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회적 통념 자체가 친구가 만약 힘들다고 하면 보통 남자라고 하면 사회적인 통념에서 남자라고 하면 야, 힘내.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가 힘드냐, 그런 게. 좀만 참아, 이런 식으로 보통. 만약에 아, 참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여성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상담 관계에서는 상담자는 그런 표현을 써야 하고 그런 면에서 다소 어색함이, 내가 하면서 어색함을 나도 느끼는 거 같아요.(중략) 나에 대한 남성성을 생각해봤을 때 책임감인 거 같아요. 내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그런 책임감? 그리고 조금 괜찮다, 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싫은 소리를 들었거나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러려는 게 어떻게 보면 남성성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고적으로 가려는, 이성적으로요.” <참여자 7>

몇몇 참여자들의 경우 남성성과 여성성이 점점 더 조화를 이루면서 융통성과 사고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위축되었던 남성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조화와 균형감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남자는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고 여성이 못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고 또 내가 못할 때는 여성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유해진 것 같아요. 융통성, 사고의 유연성이 조금 생긴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남자가 이런 일을 하면 조금 창피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어때서? 역할을 나누기 보다는 중립적으로 사고가 조금 변화한 것 같아요.” <참여자 3>

“남성성이 회복이 많이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뭔가 조금 더 상냥하게 말하고 목소리도 조금 높여서 말하고 이 목소리를 다시 찾는 과정이 그 교수님을 통해 집단상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내가 좀 더 확신에 차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쭈뼛쭈뼛하는 것들이 좀 더 명료해지게 바뀌었어요. 남성성의 회복이 많이 된 거예요. 만약 남성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자로서의 모습을 가졌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았을까, 흉내 내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상담에 온 사람들이 자신의 남성성에 대해 두려워서 버린 경우가 많고 여자들도 자신의 여성성을 버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중략)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여성성, 남성성으로 나누어져있는 이름 붙은 것들을 조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

거든요? 그러다보니 분별력이나 틀을 지켜야 하는 엄격함들이 결코 차갑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반대로 공감이 따스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죠.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남성성, 여성성 하나로 확기울어버리는 상담자가 아니라 그 중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양쪽 모두를 쓰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참여자 4>

이렇듯, 참여자들은 상담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성역할을 내적으로 통합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하게 내면화된 남성 성역할로 인해 갈등을 경험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상담에 입문한 참여자들로서는 상담전문직의 낮은 보수와 열악한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경제적인 고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한다.

“한국 남자로서 더욱 어땠다면 내 커리어고 내가 가정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돈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연봉 같은 것도 많이 본 거 같고. 한국의 현실을 봤었을 때도 똑같이 연봉을 봤던 것 같고. (중략)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가장으로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스스로 했던 거 같아. 항상 갈등은 있는 거 같아. 갈등이라는 것은 좀 더 안정적이어야 하지 않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바깥에서 상담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접할 때는 되게 힘들지 않나.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서로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고 하면.” <참여자 1>

초심상담자로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제자리를 확인하면서 성장해감

이 구성요소는 참여자들이 초심상담자로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참여자 대부분은 상담 교육 및 수련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꼈다.

“근데 그에 비해 투자하는 돈이 너무 많은 거 같아. 수퍼비전 받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만.. 2급이 다시 1급이 되려면 손익분기점이 도대체 몇 년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 부분은 좀 바뀌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중략)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퍼비전을 받고 돈을 받고..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상담자가 돈을 벌면서 돈을 내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안 버는데 돈을 내면 이게 무슨 밑 빠진 독에 물붓기도 아니고. (중략) 걱정도 있었어요, 등록금이 비싸서 되고 나서 등록금 모으느라고 빚세게 상담을 많이 했죠. 재작년 1월 달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달에 14명씩 상담했었어요. 2달을 그렇게 하고나니까 정신분열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등록금을 못 모았을 테니까 조증 환자처럼 뛰어다녔죠.” <참여자 6>

한편, 참여자들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의

이론이나 개념들을 충분히 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상담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히, 상담을 공부하면서 상담자로서 이상적인 모습을 꿈꾸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상적인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대학원에서 상담이론을 분명히 배우긴 했는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아이에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아이와 상담 목표를 세웠지만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중략) 또 많은 이론들 중에서 이 아이에게는 이런 접근을 하고 다른 아이에게는 다른 접근을 하고 이런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 다를 것이고 공격적이고 과잉행동을 보이는 애들 같은 경우는 물론 약물치료를 같이 받고 상담을 병행하는 아이도 있기는 하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조금 미숙하다보니까 상담이 중반을 지나갈수록 호지부지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 <참여자 3>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도 상담자는 기본적으로 정말 품이 넓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저도 저한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하고 내담자가 정말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품이라고 하는 게 넓어야 하는데 그게 요즘 고민인 거 같아요. 저는 품이 넓은 상담자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을 가

지고 있습니다.” <참여자 9>

이렇듯 참여자들은 상담수련과정에서 초심자로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상담사로서 고민을 하게 돼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 길을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도 생겼고요, 우선은 하기는 하는데 그땐 학문을 공부하기 전에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지금은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좀 알고 나서 앞으로 나를 바꿔나가고 상담자로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라는. (중략) 상담의 목표를 계속 구체화하기보다는 내담자의 상황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뭔가 초점이 흐려진다, 그런 피드백들을 받았어요. 제 기본적인 능력이 상담과 좀 맞지 않나? 웬지 조금 상담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탐색도 할 수 있고 공감도 하면서 감정들을 잡아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뭔가 마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런 걸 아예 잘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 내지는 그런 게 조금 생겼죠.” <참여자 8>

실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론과 현실의 격차를 느끼는 등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신감이 떨어지지만, 참여자들은 슈퍼바이저의 도움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된다.

“저는 슈퍼비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 케이스에 대해 제일 잘 아는 건

저예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정리된 것도 있는데 확실히 이게 너무 넘치다보니까 아직 초보고 하다 보니 꿩눈,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확실히 수퍼비전을 하게 되면 좋은 상담자에게 받았을 때, 수퍼바이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확실히 내가 보지 못하거나 이걸 정리해줄 만한 수퍼비전은 분명히 있고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경험이다, 라는 것? 물론 그걸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있는 거 같고.” <참여자 9>

참여자들은 상담수련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등 전통적인 남성성과 대조되는 상담 업무가 자신의 적성에 맞고,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일반 직장과는 달리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상담 환경이 자신의 성향에 부합하며, 성장과 자기계발을 지향하는 관계지향적인 문화가 편하다고 느낀다.

“그냥 제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들이 보편적인 남성이 하는 것과 다르긴 하지만 그게 남들과 다른 걸 한다는 느낌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이것과 맞다, 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여자 8>

“그리고 분위기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런 걸 싫어 하거든요, 직장 내 위계라든지, 아무래도 남자들이 대부분이면 그런 게 잡혀버리고 회식 같은 것도 다소 강제되고 딱딱

한 문화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여기도 체계가 있고 팀장님이 있고 팀원이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수평관계로 느껴졌어요. 그런 점들이 좋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솔직히 돈이잖아요? 돈 벌러 다니는 건데, 그래도 여기는 다들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고 자기 성장 같은 것을 다 생각하고 그런 관계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다보니까 말을 해도 좀 말이 통하고 그런 거 같아요. 좀 내 방식대로 좀 편한 거 같아요. 오히려 밖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랑 조금 다른 편안함이 있어요.” <참여자 7>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수련과정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내담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자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지각한다.

“직업적인 거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삶 자체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집단 상담을 다니고 하면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아지고 나아진 것 같아요, 훨씬 그전보다 윤택해졌다고 해야 하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상담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저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욕구도 모르고 내가 힘들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모르고 살았을 것 같은데 생활 전반적인 집안의 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모든 측면에서 아직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고 할 순 없겠지만 전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더 나아졌다는 느낌. 그거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장점인 것 같아요.” <참여자 7>

한편, 참여자들은 분야의 특성상, 그리고 소수자로서 지속적인 자기개발에 힘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되게 밀도 끝도 없는 (웃음)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학문인 거 같아요.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특히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그 환경도 반영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들보다는 사회 시사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속 공부해야 하고 최신 논문들을 계속 리뷰해야 하고 이런 상담법이 이런 내담자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자기개발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웃음) 것 같습니다. 최신화를 계속 해야 하고 경험은 계속 경험대로 쌓아야 하고 지식들을 쌓아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략)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3>

“소수자? 변경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담자라는 직업 자체도 인원 자체가, 요즘은 늘고 있는 추세이지

만 많은 직군이 아니고 심리학과 학생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거기에 남성 상담자로서 들어가면 더욱더 소수이고 남자인데 좀 더 여성성을 가지게 된 존재라는 것 자체도 전체 인구 비례해서 소수일 것이고. (중략) 도전으로 느껴져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운명에 맡겨져 있달까. (중략) 근데 이 위치에서 직업적으로 생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균형을 잡고 나아가 어떻게 발휘될지가 완전히 맡겨져 있다는 느낌이라서 실존적으로?” <참여자 5>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상담수련의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상담수련과정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상담자 윤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담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슈퍼바이저 한 명이 슈퍼바이저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치는 도제식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기적인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 슈퍼비전도 좋지만 상담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 또는 윤리적인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조금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학교나 책을 보지 않으면 윤리적인 부분은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나 윤리적인 것이나 마음가짐들 그런 부분

들에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3>

“상담수련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꼭 굳이 남성상담자가 아니더라도 이틀이면 아까 비용 문제 같은 것, 학회나 학교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아지되 그게 널리 공유가 되면.. (중략) 그냥 제공되는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어서, 어떤 틀이 짜여있어서 이 사람이 상담자로서의 훈련을 기본적으로 받게 하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5>

“저는 그게 필요한 거 같아요, 도제식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저는 그분이 주슈퍼바이저니까 주기적으로 만나거든요? 이분이랑 계속 만나니까 숙제를 내주시는 거지, 예를 들어 한 번만 슈퍼비전 해주시는 분은 그것만 해주시면 땡이잖아요. 물론 사례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주시고 했겠지만. 상담자를 위해서, 상담자가 공부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부족한 거 같아요.” <참여자 2>

상담 분야의 여초 현상과 남성상담자의 기여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짐

이 구성요소는 참여자들이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갖게 된 성비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상담분야에서 남성상담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참여자들은 상담 분야의 여초 현상에 대해 아쉬움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성상담자의 수가 증가한다면 상담 분야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남학생들이 적은 것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고 외로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남학생들이 상담 분야에 입문한다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상담 이론이나 연구의 방향이 제한되고 간과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성상담자의 수가 증가한다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가능해지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밖에도 남성상담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전문직으로서 상담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남성상담자가 상담 분야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뭔가 편을 나누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구성원이 많으면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중략) 뭔가 지금 한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연구자도 많이 부족한 거 같고 연구를 함께 있어서도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담자 윤리나, 아직 우리나라는 상담 쪽에서도 보면 윤리나 그런 큰 틀에서 보는 연구는 부족한 느낌이 들어. 내담자를 중심에 두고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좋은 서비스를 줄까, 그런 미시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더 들어오면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의 토론이 나오지 않을까?” <참여자 1>

또한 참여자들은 남성상담자로서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였고,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서 상담 전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상담자들은 범죄 전과 또는 정신병력이 있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남성내담자와 1:1로 상담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반면, 본인들은 돌발 상황이 생겨도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고 충분히 대처가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내담자를 상담하는 데 있어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남성내담자들 아니면 남성 상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심이 있기도 하구요. 좀 더 남성의 경험이든, 남성에 대한 이해든 좀 더 특징적인 게 있다면 심리치료에서.. 고유성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왜냐면 나도 남자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남자 내담자들이 좀 더 편안해하는 거는 있는 거 같아요. 다 그런 거는 아닌데, 남자 내담자들이 남자 상담자를 좀 더 편안해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너무 긴장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접수면접을 하면 여자선생님일 때는 행동관찰에서 너무 긴장되어 있다고 쓰여 있는데 막상 제가 만나면 편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좀 편하긴 한가보다 이정도.” <참여자 10>

“왜냐면 여성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남성들의 고민이나 특성이 있거든요. 가족 내에서도 부부 간에 느끼는 부분들이 다를 거고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남성상담자가. 또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 남자

내담자들이 많이 물리는 추세거든요. 인터넷 중독, 과잉행동, 보호관찰, 우울, 중독 이런 부분들이 남자 내담자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남자 상담자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3>

남성 초심상담자의 상담수련경험의 일반적 구조

지금까지 남성 초심상담자의 상담수련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5개의 구성요소와 22개의 하위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들 간의 개별적인 비교를 통한 상황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각 참여자들의 상황적 구조의 개별성을 뛰어넘어 전체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파악한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일반적 구조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은 해당 현상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가능한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서(신경림, 2004), 양적연구방법에서 평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남성 초심상담자의 상담수련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시간적·공간적 맥락에 따라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재구성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수련과정에 입문하기 앞서 다른 분야의 전공이나 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기존에 종사하던 분야에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진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진로탐색기를 가지게 된다. 진로탐색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 분야를 접하게 되고, 상담직종의 내적 가치에 매력을 느껴 상담을 공부해야겠

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즉, 참여자들은 상담직이 경제적인 보상이나 승진 기회, 장래 전망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분야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고 일을 하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진로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은 대체로 이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지만,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분야를 전공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또한 주변에 있었다.

상담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참여자들은 남성이 희소하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성비의 범위는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성 비율이 30%를 넘지 못했다. 대학원 입학 초기에는 남성상담자가 적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고 다소 부담을 느낄 때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대학원 문화에 적응해 가고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남성상담자들은 점점 자신과 여학생들 간에 관점과 의사소통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남녀 차이를 인식하면서 여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더 심해지면서 점점 더 주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반면, 같은 처지에 있는 남학생들에게 동류의식을 느끼고, 그들과 대학원 안팎에서 같이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대학원 과정 중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실습 현장에 나가 상담 및 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남성상담자의 희소성으로 인해 실습기관에 채용될 때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음을 경험한다. 반면,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자신이 남성이라

는 점이 사례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즉, 실습 현장에 남성상담자가 희소하기 때문에 남자청소년, 남성상담자를 원하는 내담자, 남성상담자가 다루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들이 자신에게 배정되는 것을 경험한다. 한편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의 경우 성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성내담자를 배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한다.

한편,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수련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는데, 대학원 학비, 슈퍼비전 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남성 초심상담자는 대학원에서 배운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이 연계되지 않아 괴리감을 경험하는데, 체화되지 않은 이론이나 개념들을 실제 상담 장면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상담이론을 공부하면서 이상적인 상담자의 모습을 꿈꾸지만, 실제 상담 장면에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한편, 참여자들은 실습 현장에서 주변 동료 상담자들이 남성상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 또는 선입견을 마주하게 된다. 즉, 물리적인 힘을 필요로 하거나 기계를 다루야 하는 업무의 경우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동료들을 목도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과 주변의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슈퍼비전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남성 초심상담자는 슈퍼비전을 통해 내담자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슈퍼바이저의 격려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다.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수련과정을 거치면서 상담전문직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체험하

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경험한다. 즉, 참여자들은 한국 문화에 몸담고 있는 남성으로서 경제적인 부양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미래 전망에 대한 고민과 불안이 크다. 이러한 고민은 무보수로 일하면서 고비용의 수련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경력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내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상담자로서의 효능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이들은 어느 정도 여성성이 요구되는 상담현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 안에 내재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고찰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배경과 경험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 안의 남성성이 약해지거나,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험을 하고, 양성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렇듯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자로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경제적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역경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여러 도전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상담 업무나 환경이 이들의 특성 및 가치와 부합되기 때문이다. 즉, 참여자들은 상담하는 것이 즐겁고 자신의 적성에 맞으며, 상담 현장의 문화와 분위기가 자신의 성향과 부합한다고 느낀다.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수련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각이 발달할 뿐 아니라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 모든 것이 남성 초심상담자가 자신의 역경을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된다.

한편,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상담 분야의 여초 현상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 아쉬움을 느

끼는데, 남성상담자의 수가 증가한다면 상담 분야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남성상담자로서 자신이 지닌 강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서 상담 전반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논 의

본 연구는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상담수련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을 시간적 순서와 장소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고 그 경험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명의 남성 초심상담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Giorgi의 기술적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5개의 구성요소와 22개의 하위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남성 초심상담자의 상담수련경험의 상황적 구조와 일반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와 비교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여초 직종에 속한 남성들의 경험, 초심상담자로서의 경험, 남성상담자의 경험), 본 연구결과 역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고, 본 연구결과가 남성 초심상담자들의 상담수련 과정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자 한다.

여초 직종에서의 정착과 적응

Simpson(2005)의 연구에 따르면, 여초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직업을 추구하는 추구자(seeker), 여초 직업을 적극적인

로 탐색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진로선택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발견자(finder), 주로 남성지배적 직업에 장기간 종사하다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초 직종에 정착하게 된 정착자(settler)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 가운데 처음부터 상담 전문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추구자 유형에 해당되는 참여자는 1명 뿐(참여자 10)이었다. 참여자 10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심리학에 흥미를 느껴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는 임상과 상담 중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고민했는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임상에 대한 흥미를 잃고 상담을 선택하게 된다. 참여자 10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상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오랜 기간 직업 탐색의 시간을 갖다가 우연히 상담을 접하게 된 발견자, 상담과 동떨어진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거나 일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상담 분야에 정착하게 된 정착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국의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대부분 발견자와 정착자 유형의 모습이 혼재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impson(2005)의 연구에서 여초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전반적으로 외적 보상(보수와 미래 전망)보다는 내적인 보상(자기실현과 직업에 대한 만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내적인 보상을 중시했는데, 이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정착하게 된 정착자 유형에서 더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정착자 유형인 참여자 9는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대로 인생을 마치기에는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상담 분야를 접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상담을 공부하게 된다. 즉, 상담직을 통한 자기실현의

욕구가, 높은 보수 및 안정적인 미래를 희생하게 된 진로 전환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참여자들이 상담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대체로 지지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초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소득이 적고 지위 또한 낮은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함을 고려했을 때(Heppner & Heppner, 2009),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간호사나 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담전문직이 다소 중성적인 성역할을 가진 직업군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탁진국(1995)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간호사, 유치원교사, 비서, 전화교환원을 가장 여성적인 직업군으로 인식한 반면, 심리학자는 중성적인 직업군으로 인식하였다. 즉, 상담심리학에 대한 성 고정관념과 이에 따른 사회적 낙인이 다른 여성지배적 직종만큼 크지 않고, 일종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렇게까지 심한 반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학원 입학 초기, 연구 참여자들은 남성상담자의 희소성으로 인해 교수와 동료 여성 학우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낀다. 이는 유아교육과에 입학한 남학생들이 학과 수업에서 주목을 받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안지령, 2013). 그러나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본격적으로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성차를 인식하고 다소 융화되지 못하면서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다른 여초 전공 및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경험과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박영례(2009)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사고의 틀, 대

화 주제, 행동양식, 인지구조 및 대인관계 양상을 낮설어 하면서 관계에서 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여성학우 및 여성상담자들 사이에서 늘 괴리감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참여자들은 여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고, 상명하복의 딱딱한 분위기인 조직사회에 비해 여성 비율이 높은 상담 현장의 수평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에 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Simpson(2004)의 연구에서도 여초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소수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여성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편안함의 원천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하면, 여성 비율이 높은 상담 교육 환경은 남성 초심상담자들에게는 불편함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다른 남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유대감을 느끼고 더 밀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은 다른 남학생들과 어울려 회식을 하거나 특정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고, 외부에서 기존의 남성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 전공 남학생들에게서도 확인되었는데(최연철, 2003), 같은 과 남자 동기나 선배들과 같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상담 분야에 남성이 희소하기 때문에 상담 실습기관에 채용될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여초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다. Simpson(2004)의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 사서, 승무원, 간호사,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여초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소수자라는 위치에서 오는 직업적 이득을 체감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를 선발할 때 남학생들의 역할 모델로서 남자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 지원자보다 남성 지원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남자간호사의 희소성으로 인한 취업에서의 이로움이 남학생들의 간호학과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례, 2009).

초심상담자로서의 도전과 즐거움

이렇듯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남성 상담자의 희소성으로 인해 실습이나 취직 시 이로움을 경험하지만, 수련과정의 미흡함이나 결함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했고, 수련과정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의식은 본 연구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심상담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김지연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초심상담자들은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수련 기간 중 수입이 없고, 상담 과정 및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며, 공부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가가 부족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 상담자로서의 비전이 그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좋은 역할모델을 찾기 힘들고, 심지어 상담하는 사람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목격하거나, 상담자의 수입구조가 초심자들을 착취하는 형태라고 인식하게 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수련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특히 수입에 비해 상담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데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수련 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를 경험할 뿐 아니라, 수퍼비전,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이중고를 겪으면서 상담자로서의 미래를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수련과정을 거치면서 상담자로서의 효능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이론을 실제 상담에 적용하는 것을 힘들어했는데, 특히 상담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힘들고 어떤 내담자에게 어떤 접근을 써야 할지 고민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다. 즉, 초심상담자들은 높은 동기를 가지고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을 배우지만 상담회기에 이론을 적용하는 유연성이 부족하고 이론과 실재가 일치하지 않음을 경험한다(오정희, 2007). 또한 황채운 등(2009)의 연구에 참여한 초심상담자들 역시 자신이 상담자로서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예상치 못한 내담자의 반응에 당황하거나 내담자를 망칠까봐 불안해하고, 상담이 조기에 종결될까 전전긍긍해하며, 자신이 배웠던 상담 기법을 충분히 소화해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비록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수련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현실을 기꺼이 수용하고 끝까지 도전하려는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초심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었는데, 수련과정이 길고 수입이 불안정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든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거나(정경빈, 2009),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핵심문제들을 다루면서 처음에는 불안이나 두려움 등을 경험하지만 점차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는 것이 편안해지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채운 등, 2009).

더욱이,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수련과정 중 경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요인 중 하나는 상담 업무 그 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이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고 상담 자체에서 즐거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상담이 끝나고 내담자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 상담에 효과가 있고 자신이 상담에 적성이 있음을 깨달았으며, 결국 이것이 수련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김지연 등(2009)의 연구에서도 초심상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각한 어려움 극복 요인은 ‘성취경험과 (상담 및 상담관계에 대한) 내담자의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또한 수퍼비전에서의 긍정적인 경험 또한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수련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채운 등(2009)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초심상담자들은 상담 동료나 선배와의 관계에서도 힘을 얻지만, 수퍼바이저와의 관계 및 수퍼비전 경험을 더 특별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참여자들은 이러한 관계 경험을 결정적 사건(critical incident)이자 가장 의미 있는 수련경험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이 공감과 수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 타당화된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는 관점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등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상담수련경험의 중요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초심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심상담자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들여다보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김지연 등, 2009; 황채운 등, 2009), 여러 사람의 아픔을 보고 겪게 되면서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김지연 등, 2009),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하면서 인간에 대한 애정이 커졌으며(김지연 등, 2009), 나아가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김지연 등, 2009; 황채운 등, 2009).

상담 문화와 남성 성역할의 충돌

남성 상담자들은 여성적인 성역할을 요구하는 직종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정민선, 2011), 필연적으로 자신의 성역할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경험하고 이에 대처해 나간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초심상담자들 또한 유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몇몇 참여자들은 여성 학우 또는 동료들과 생활하면서 자신의 남성성이 점점 약해질 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로부터 여성스럽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여성 지배적 전공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간호학과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행동 패턴이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남성성이 상실된다고 느끼면서 성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례, 2009).

또한 몇몇 참여자들은 개인으로서 학습한 남성 성역할규범이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 및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한 참여자는 남성내담자를 보면 불편하고 권력관계에서 오는 경쟁심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남성성 중 하나인 ‘성공과 경쟁’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Mintz & O’Neil, 1990). 즉, 내담자의 호소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내담자 앞에서 자신의 치료 역량을 뽐내거나 권위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담관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Wester & Vogel, 2002). 이럴 경우 내담자와 동반자로서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Scher, 2005). 또 다른 참여자(참여자 7)는 개인의 어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남성적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남성내담자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성역할갈등의 4가지 차원(Wester, 2007) 중 ‘감정 억제’와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같은 남성에게 애정 어린 표현을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사회적 규범이 남성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인식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초심상담자들 중에는 위에서 언급한 성역할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 이후에 양성성(androgyny)을 추구하거나(참여자 3, 4),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공감과 같은 여성적인 행동들을 계발하려고 노력하는 참여자가 있었다(참여자 9). 양성성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들은 비교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상담 문제 유형과 상관없이 내담자들이 선호하는

대상이다(하진의, 1989). 이는 상담자의 양성성이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여자 3, 4, 9는 이러한 양성성을 계발하고 적절히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1/3 미만의 참여자들이 양성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남성상담자 비율이 54.10%(여성성 정체감 비율은 24.59%, 남성성 정체감 비율은 14.75%)에 이른다(선행연구(Harvey & Hansen, 1999)와 일치하지 않는 반면, 남성 초심상담자 집단에서 양성성 정체감 비율이 가장 낮다는 국내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최혜림, 김영희, 2000). 즉, 남성 상담자들의 상담 경력이 쌓일수록 양성성을 추구하는 비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경제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분야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과 불안정한 미래는 모든 초심상담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남성 성역할 규범에서 강조하는 일과 성취,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담직에 입문한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계의 최우선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남성에게 일 또는 직업이란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는 통로이면서(Nolan, 2009), 삶의 목표와 정체성을 차지하는 주된 요소다(최사량, 2014). 따라서 남성 초심상담자들에게 상담분야의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많은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대학원에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주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 대학원 문화를 더욱 포용적인 분위기로 바꿔야 함을 시사한다. 남성 상담수련생들이 프로그램 내에서 소외감을 느낄수록 기존의 정서적 억제(emotional restriction)는 더욱 심해지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성역할에 자신이 얼마나 고착되어 있는지, 이것이 가진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할 기회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Wester & Vogel, 2002).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모여 서로 문제인식을 공유하거나, 역할모델이나 멘토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지지 집단을 통해 의사소통이 증가한다면 남성으로서 느끼는 주변화가 감소되고, 이를 통해 남성 상담수련생들이 동료 학생, 교수들과 연계되면서 자신감과 전공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할 것이다(Michel et al., 2013). 이는 여초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사안이다(박영례, 2009; 주봉관, 김낙홍, 2011). 예를 들어, 박영례(2009)는 다양한 통로로 남자 간호대학생들에게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강점 및 직업의 비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주봉관과 김낙홍(2011)은 남자 예비교사와 남자 현장교사, 타 대학 남학생들을 포함한 정기적인 남자 지원모임을 운영함으로써 남자 예비유아교사로서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초심상담자들 역시 성인 남성으

로서 느끼는 미래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력을 가진 남성 상담자들로 구성된 정기적인 모임이 결성된다면 남성 초심상담자들의 적응과 진로계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남성 상담자의 수가 증가하면 상담에 대한 관점과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상담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남성 상담자로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상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비해 현재 남성상담자의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Michel 등(2013)은 상담분야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추천하였다. 예를 들어, 대학원 홈페이지에 남성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문건을 게시하거나, 상담 전공을 홍보하는 책자에 남성상담자의 성공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상담 분야가 남성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남성 초심상담자 또는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 남성 상담자들에게 상담 분야의 현실에 대해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로 나타났듯이,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대학교 안팎에서 상담 관련 수업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상담에 흥미를 느끼거나 직업탐색기 동안 주변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상담 분야를 접하게 되지만, 상담 분야와 상담자에 대한 인식과 정보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담의 긍정적인 부분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현실적인

부분을 놓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상담수련과정에 입문하고 나서야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 분야와 전공에서 남성들이 담당할 역할이 있고 환영받는 분위기임을 남성들에게 홍보하되,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망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수련 과정에서 경험하는 혜택(긍정적인 관심, 편안한 분위기, 채용에서의 이득 등)과 비용(여성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경제적인 불안 등)에 대한 균형 있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상담전문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양성성에 초점을 둔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 초심상담자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이러한 갈등은 상담 관련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민이 전문상담자로서 성장하는 데 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상담자로 하여금 남성성과 여성성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양성성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Bem(1977)의 정의에 따르면, 양성성(androgyny)이란 ‘자신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하고 두 특성에 대해 동등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를 구별 짓지 않는 사람이다. 실제로,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을 적절히 조합하거나 상황에 맞는 특성을 취사선

택할 경우 양성성 유형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rvey & Hansen, 1999). 양성성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특성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유연성과 융통성이 요구된다. 즉, 상담자에게는 표현적 행동(친교성)과 도구적 행동(행위주체성)을 적절히 선택해서 상황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양성성이 요구된다(하진의, 1989).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상담자 가운데 남성 초심상담자의 양성성 정체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최해림, 김영희, 2000), 본 연구에서도 양성성 정체감을 명확히 보고한 참여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하였다. 남성성과 남성적 성역할에 고착된 남성 초심상담자일수록 상담 관련 자기효능감(counseling self-efficacy) 수준이 낮기 때문에(Wester, Vogel, & Archer, 2004),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성 교육 및 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Wester와 Vogel(2002)은 다양한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자신의 남성성과 남성 성역할에 대한 태도, 신념, 가치관 등을 살펴보고, 남성 성역할에 지나치게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서술하고 후속 연구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초심상담자의 참여자 수가 10명으로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적용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가 다른 남성 초심상담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 경력 및 학력을 제외하고는 연구

참여자의 모집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령, 결혼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배경에 따라 남성성/여성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거나 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담수련경험의 의미가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초심상담자의 경력을 4년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그 안에서도 1년차와 3년차의 경험이 다를 수 있고, 또는 연차에 상관없이 상담사례를 몇 회기 진행했는지에 따라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모집할 때 관심 있는 연구문제에 따라 더욱 세밀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좀 더 동질적인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는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상담수련과정에서 겪는 전반적인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질문지에 수록된 질문들의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였고 참여자들의 실제적인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참여자들의 인식 및 감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즉, 특정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영역별로 더 깊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시간/공간/영역 별로 연구주제를 한정하고 참여자들의 인식 및 감정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서 보다 심도 있는 경험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담수련과정에 입문하기 전에 경험한 갈등과 고민에 초점을 맞추거나, 내담자와 상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는지, 지금까지 받은 수퍼비전 중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게 느껴졌는지 등을 연구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상담수련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처음으로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초심상담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남성상담자들에게 특화된 경험을 구분해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는 여초 전공 및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경험을 밝힌 선행연구들과 남성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문지를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남성 초심상담자들이 경험하는 현상과 의미를 도출해냈다. 둘째, 본 연구는 남성 초심상담자가 경험한 상담수련의 본질 구조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이 경험이 상담 분야 및 사회적으로 갖는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남성 상담자로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어떤 식으로 상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상담 분야에 남성들의 비율이 더 늘어나면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연구 참여자의 육성을 통해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남성상담자의 비율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한 시사점 또한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상담에 관심이 있지만 선뜻 입문하기 어려워하는 예비 남성상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체로 예비 남성상담자들은 상담과 상담자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진 채 상담수련과정에 입문하게 되어 이후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담전문직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 연구 결과가 직·간접적인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세영 (1998). 교직 여성화와 교직의 성별관계. *한국여성학*, 14(2), 64-9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욱!’ 하고, 의심하고...사회생활 어렵게 하는 ‘인격 및 행동장애’. <http://www.hira.or.kr>에서 검색.
- 고용노동부 (2012). '11~'12 Job Map.
- 고윤희, 박성현 (2014).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자기성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05-839.
- 구분열 (2009). 초등학교 남교사에게 요구되는 성역할 기대 이미지.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대회*, 975-987.
- 권혜경, 이희경 (2013).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397-424.
- 김대욱 (2013). 초임 남자유치원 교사가 겪는 적용의 어려움과 이직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7(1), 339-365.
- 김세일 (2013). 청소년상담자의 성장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은, 박인실 (2014). 남성 직업무용수의 성역할 정체성 갈등과 적용. *한국체육과학지*, 23(5), 1099-1112.
-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2009). 초심상담자와

- 상담전문가가 겪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0(2), 769-792.
- 박영례 (2009). 남학생의 간호학과 적응과정. *기본간호학회지*, 16(4), 449-458.
- 박혜준, 이승연 (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서울: 학지사.
- 백승훈, 노진형 (2013). 남자유아교사의 “교사 되어가기”에 대한 질적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2(1), 49-73.
- 신경림 (2004).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재호, 정남운 (2007). 초보상담자의 상담 성과에 관한 질적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889-911.
- 안선영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지령 (2013).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남자 예비유아교사’들의 이야기. *한국영유아보육학*, 79, 67-88.
- 오정희 (2007). 초보 상담자들의 첫 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달 (2006). 전문가 윤리와 남성 치료자의 윤리적 전문직업적 위기.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2), 53-89.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과주: 한길사.
- 이미정 (2014). 상담수련과정에서 기독교인 상담사의 자기 발달 경험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순 (2010). 상담일반: 초보 상담자들의 어려움과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담성과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1(3), 1021-1035.
- 정경빈 (2009). 초보상담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선 (2011). 남성상담자의 감정억제와 공감, 내담자의 작업동맹, 상담만족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봉관, 김낙홍 (2011). 남자 예비유아교사로서의 어려움과 교사양성기관의 지원방안 탐색. *유아교육학회지*, 15(1), 485-508.
- 최사랑 (2014). 여성 직업군에 속한 한국 성인 초기 남성의 남성성 연구. *연세상담코칭연구*, 2, 237-257.
- 최연철 (2003). 남자 유아 교사로 살아가기.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5-43.
- 최은실 (2002). 초보상담자의 반응 부담이 내담자 상태 알아차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해림, 김영희. (2000). 한국 상담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석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15.
- 탁진국 (1995). 한국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성별, 성역할유형 및 문화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8(1), 161-174.
- 하진의 (1989). 상담자의 성역할 정체감이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경란 (1993). 대학생이 선호하는 상담자 유형에 관한 연구-상담자의 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채운, 박지아, 유성경, 강지연 (2009). 상담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3), 1359-1382.
- Addis, M. E., & Mahalik, J. R. (2003). Men, masculinity, and the contexts of help seeking. *American psychologist*, 58(1), 5-14.

- Barritt, L. S., Beekman, T., Bleeker, H., & Mulderij, K. 저, 홍기형 번역. (1995). *교육 연구와 현상학적 접근*. 서울: 문음사 (원저: A handbook for phenomenological research, 1983년 출판)
- Bem, S. L. (1977).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2), 196-205.
- Bernstein, B. L., Hofmann, B., & Wade, P. (1987). Preferences for counselor gender: Students' sex role, other characteristics, and type of probl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1), 20-26.
- Boulware, D. W., & Holmes, D. S. (1970). Preferences for therapists and related expectanc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2), 269-277.
- Chusmir, L. H. (1990). Men who make nontraditional career choic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1), 11-16.
- Cross, S., & Bagilhole, B. (2002). Girls' jobs for the boys? Men, masculinity and non traditional occupations. *Gender, Work & Organization, 9*(2), 204-226.
- Evans, M. P., Duffey, T., & Englar Carlson, M. (2013).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Men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4), 387-389.
- Fuller, F. F. (1964). Preferences for male and female counselor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42*(5), 463-467.
- Gilbert, L. A., & Scher, M. (1999). *Gender and sex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Boston, MA: Allyn & Bacon.
- Giorgi, A. (Ed.).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Duquesne University Press.
- Good, G. E., Thomson, D. A., & Brathwaite, A. D. (2005). Men and therapy: Critical concepts, theoretical frameworks, and research recommenda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6), 699-711.
- Harvey, J. A., & Hansen, C. E. (1999). Gender role of male therapists in both professional and personal life. *Sex roles, 41*(1-2), 105-113.
- Heppner, M. J., & Heppner, P. P. (2009). On men and work taking the road less traveled.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1), 49-67.
- Hill, C. E., Sullivan, C., Knox, S., & Schlosser, L. Z. (2007). Becoming psychotherapists: Experiences of novice trainees in a beginning graduate clas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4*(4), 434-449.
- Levanon, A., England, P., & Allison, P. (2009). Occupational feminization and pay: Assessing causal dynamics using 1950-2000 US census data. *Social Forces, 88*(2), 865-891.
- Levant, R. F., Smalley, K. B., Aupont, M., House, A. T., Richmond, K., & Noronha, D. (2007). Initial validation of the male role norms inventory-revised(MRNI-R). *The Journal of men's Studies, 15*(1), 83-100.
- Lupton, B. (2006). Explaining men's entry into female concentrated occupations: Issues of masculinity and social class. *Gender, Work & Organization, 13*(2), 103-128.

- Mahalik, J. R., Locke, B. D., Ludlow, L. H., Diemer, M. A., Scott, R. P. J., Gottfried, M., & Freitas, G. (2003). Development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4*(1), 3-25.
- Mahalik, J. R., & Rochlen, A. B. (2006). Men's likely responses to clinical depression: What are they and do masculinity norms predict them?. *Sex Roles, 55*(9-10), 659-667.
- Michel, R. E., Hall, S. B., Hays, D. G., & Runyan, H. I. (2013). A mixed methods study of male recruitment in the counseling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4), 475-482.
- Mintz, L.B., & O'Neil, J. M. (1990). Gender roles, sex, and the process of psychotherapy: Many questions and few answe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4), 381-387.
- Nolan, J. (2009). 'Working to live, not living to work':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n's work orientation and job insecurity in the UK. *Gender, Work & Organization, 16*(2), 179-197.
- Ogrodniczuk, J. S., Piper, W. E., Joyce, A. S., & McCallum, M. (2001). Effect of patient gender on outcome in two forms of short-term individual psychotherapy. *The Journal of psychotherapy practice and research, 10*(2), 69-78.
- O'Neil, J. M. (2008). Summarizing 25 years of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new research paradigms and clinical implic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3), 358-445.
- O'Neil, J. M., Good, G. E., & Holmes, S. (1995). Fifteen years of theory and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New paradigms for empirical research. *In Parts of this chapter were presented at the 102nd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CA, Aug 1994*. Basic Books.
- Scher, M. (2005). *Male therapist, male client: Reflections on critical dynamics*. In G. E. Good & G. R. Brooks (Eds.), *The new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with men: A comprehensive guide to settings, problems, and treatment approaches* (pp. 308-319). San Francisco: Jossey_Bass.
- Schweiger, W. K., Henderson, D. A., McCaskill, K., Clawson, T. W., & Collins, D. R. (2011). *Counselor preparation* (13th ed.). New York, NY: Routledge.
- Simpson, R. (2004). Masculinity at work the experiences of men in female dominated occupations. *Work, Employment & Society, 18*(2), 349-368.
- Simpson, R. (2005). Men in non-traditional occupations: Career entry, career orientation and experience of role strain.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12*(4), 364-380.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ue, D. W., & Sue, D. S. (2013).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6th ed.). Hoboken, NJ: Wiley.
- Wester, S. R. (2007).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multiculturalism: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2), 294-324.

Wester, S. R., & Vogel, D. L. (2002). Working with the masculine mystique: Male gender role conflict, counseling self-efficacy, and the training of male psycholog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3(4), 370-376.

Wester, S. R., Vogel, D. L., & Archer Jr, J. (2004). Male restricted emotionality and counseling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1), 91-98.

원 고 접 수 일 : 2017. 03.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7. 11

게 재 결 정 일 : 2017. 07. 31

The Professional Training Experience of Male Novice Counselors

Sang Hak Lee

Nowon-gu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for Youth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experiences of male novice counselors both before and during professional training, as well as what those experiences mean to them. Ten male novice counselors were recruited through purposive and snowball sampling. In-depth interviews were tape-recorded and transcribed. Data analysis using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resulted in 640 meaning units, 22 sub-categories, and 5 categories. Five categories include 'Having an interest in counseling that fits his personality and values after career exploration', 'Adapting to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in the counseling program', 'Experiencing advantages, stereotypes, and gender role conflict as a male counselor', 'Having a hard time as a novice counselor but finding his niche and growing', 'Becoming conscious of female dominance and male counselors'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profession'. Sub-categories were integrated and reconstructed to draw an essential structure of male novice counselors' experienc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male novice counselor, experience of professional counselor train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부 록

면접질문지

개방형 질문) 남성상담자로서 상담수련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1) 남성상담자로서 전문적인 상담수련과정에 입문하기 전에 무슨 경험을 하셨나요?(상담 전공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전에 무슨 경험을 하셨나요?)
 - 1-1) 상담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동기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 1-2) 상담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망설인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특히 망설이게 하던가요?
 - 1-3) 상담 전공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인상은 어떠했나요?
 - 1-4) 상담 전공 대학원에 입학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 1-5) 상담 전공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주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 2) 남성상담자로서 전문적인 상담수련과정에 입문하고 난 다음에 무슨 경험을 하셨나요?(상담 전공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나서 무슨 경험을 하셨나요?)
 - 2-1) 남성상담자로서 상담 전공 대학원 안에서 무슨 경험을 하셨나요?
 - 여성의 비중이 많은 대학원 과정에서 소수자인 남성으로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나요?
 - 상담 전공 대학원의 문화는 어떠했나요?
 - 상담 전공 대학원의 문화에서는 어떤 것을 가치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던가요?
 - 상담 전공 대학원의 문화가 이전에 익숙했던 문화와 다른 점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을 배우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나요?
 -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에서 말하는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요?
 - 상담 전공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의사소통하던가요?
 - 여학생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 남학생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 전공 교수님과의 대인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 2-2) 남성상담자로서 상담 실습 현장에서 무슨 경험을 하셨나요?
 - 여성의 비중이 많은 상담 실습 현장에서 소수자인 남성으로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나요?
 - 상담 실습 현장의 분위기나 문화는 어떠한가요?
 - 상담 실습 현장의 문화에서는 어떤 것을 가치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던가요?
 - 상담 실습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요?

- 내담자와 상담을 실제로 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나요?
 - 내담자의 성별에 따라 각각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 동료 상담자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지금까지 받은 수퍼비전은 어땠나요?
 - (개인분석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지금까지 받은 개인분석 시간에 무엇을 경험했나요?
 - (집단상담을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지금까지 참여한 집단상담 시간에 무엇을 경험했나요?
 - (공개사례발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지금까지 참여한 공개사례발표에 무엇을 경험했나요?
- 3) 남성상담자로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입니까?(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3-1) 상담수련과정에 있는 남성상담자로서의 당신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 3-2) 상담수련과정에서의 경험이 당신의 진로 및 미래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나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 3-3) 남성상담자로서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나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 3-4) 상담전문직의 낮은 봉급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경제적인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3-5) 여성의 비중이 많은 상담계의 분위기 및 문화에 속한 남성으로서, 남성성(남성다움, 남성적 성역할)과 관련한 갈등은 없으셨는지요?
- 4) 남성상담자로서 자신이 상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4-1) 현재 상담전문직에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지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말씀해주세요.
 - 4-2) 상담전문직에 남성이 더 들어오면 어떤 점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 4-3) 자신이 남성상담자로서 얻었던 장점이나 이득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5) 남성상담자로서 상담수련과정을 거치면서 아쉬웠던 부분,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대학원의 커리큘럼, 문화)
- 5-1) 상담수련과정에서 어떤 점이 바뀌면 남성 상담수련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
 - 5-2) 상담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남성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마무리 질문: 상담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남성상담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한 단어 또는 한 구절로 표현해주시겠습니까?